



일본 금융청, 파생상품 리스크 공시 의무화 추진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금융청은 파생상품 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감독지침을 개정하여 늦어도 2012년 12월까지 적용할 방침임.
 - 금융청이 파생상품 투자 시 발생 가능한 손실 정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파생상품 확인을 비롯한 자산구성의 파악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.
 - 금융청은 리스크 공시내용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론, 자동차론 등과 연계한 금융상품과 여러 상품을 묶어 조성한 파생상품 등을 구별해 유가증권보고서에 보고하도록 함.
 - 또한, 파생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의 관여도 정도와 파생상품을 개발한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공시해야 함.

- 파생상품의 경우 리스크 크기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에서는 파생상품을 개발한 금융회사가 리스크가 높은 후순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관행이었음.
 -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파생상품을 개발했던 일본의 금융회사 대부분이 리스크가 높은 후순위 파생상품을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.

- 이에 금융청은 최근 대출수요 및 예대마진 등의 수익원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파생상품 투자 확대를 통해 수익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.
 - 금융청이 예금 중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예증률을 조사한 결과,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은행과 신용금고의 예증율이 각각 29%, 28%로 전년동기대비 5~8%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- 일본의 파생상품 규모는 2010년 9월 기준 약 13조 엔으로 금융위기 이후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지만, 금융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.

(일본경제신문 9/28)